

# 현대복식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남미현\* · 박명희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수료\* ·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과거에는 드러낼 수 없었던 잔인하고 파괴적인 인간 본능의 모습들을 과격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기말의 시대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여 비정상적이며, 과격하며, 혐오스러운 반면 동시에 재미와 웃음이 섞인 그로테스크한 현상은 사회전반에 만연한 심리적 부조화와 소외현상 등 현대 사회의 현안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복식에서 그로테스크는 오래 전부터 왜곡, 과장, 축소, 변형 등 여러 조작을 통하여 표현되어왔으며, 이러한 복식은 패션(Fashion) 혹은 패드(Fad)로 이어져왔다. 특히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시대이후 빈번히 나타나며 더욱 더 충격적인 표현을 시도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표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파악한 뒤, 현대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재정립하고, 오늘날 그로테스크한 복식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와 현대사회의 제 가치관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미래의 인간의 모습을 조망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관련문헌 및 선행 연구자료를 이용한 문헌 연구와 관련 패션지의 사진과 인터넷 등의 실증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적 분석 범위는 1990년대 이후 프레타 포르테(Prêt-à-porter)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마성은 인간 내면의 파괴적이고 공격적

인 본능인 죽음의 본능(Thanatos)과 세기말 현상을 배경으로 복식에서도 죽음을 상징하는 섬뜩한 오브제나 괴기스런 악마적 모티프를 사용하여 충격적, 파괴적, 잔혹함, 공포감을 조성한다.

둘째, 혐오성은 파괴적인 인체 이미지를 형성하여 환멸감과 불쾌함을 유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혼란과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암시하는 것이며, 인간존재 속에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고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유희성은 의복이나 인체의 형태를 왜곡·과장하여 비정상적이고 기괴함을 유발한다. 장난스럽고 기묘한 디자인의 의상은 비정상적 웃음, 풍자적인 웃음, 익살, 희극적이면서 동시에 충격적이고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복식의 유희적 표현은 고정되고 폐쇄된 세계를 개방하고 유동적으로 이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원시성은 미개 민족의 신체장식을 통하여 인체를 왜곡하거나 변형하기도 하고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괴기스러운 형태로 나타난다. 모든 것이 혼성화되고 미분리된 세계를 통해 소외되고 억압된 생명의 존재에 물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기계성은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사이보그(cyborg) 형태와 첨단 테크놀로지 요소를 도입하여 반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기계성은 과학의 찬양보다는 거부적, 공격적, 반항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다.